■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59-598.
http://doi.org/10.17948/kcs.2019..84.559

1930년대 『동아일보』의 인적 구성과 변동

한종민(韓鐘珉)*

목 차

1. 머리말
2. 1930년대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 구성과 변동
3. 1930년대 『동아일보』 사설 필진·편집진의 구성상 성격과 변동
4. 맺음말

국문초록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적 공간에서 『동아일보』는 제한적이나마 당시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한편, 언론이 지닌 사회비판적 기능을 통해 그 주도세력들이 조선 내에서 나름의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그러한 역할은 총독부의 검열체제 아래에 기능하는 것이었으며, 상업화된 회사조직으로서의 경영상 문제와 회사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유치, 독자확보 등의 문제도 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존재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더불어 인적 구성도 논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였는데, 『동아일보』의 내부 인적구성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앙학교, 와세다를 중심으로 한 학맥을 공유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김성수·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자본·경영진이 강고한 주도권을 유지했으며, 경성방직, 중앙학교, 보성전

* 부산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문의 입장이 논조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다만 사설의 필진・편집진의 경우 자본・경영진과는 주된 활동단체나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는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1930-1933)에는 이전부터 『동아일보』에서 활동하며 자본・경영진과 입장을 공유했던 인물들과 더불어 수양동우회계열이 함께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부 민족주의 좌파, 사회주의계열의 인물들도 가담하고 있었다. 이후 1933년을 전후로 수양동우회계열이 『동아일보』를 이탈하면서 이들의 사내 입지는 다소 확장되었는데, 이는 곧 사설에도 이들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본・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필진들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필진의 공존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인적 변동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과 더불어 강화된 일제의 전시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이들의 사상적 입장차이는 체제순응적 전쟁협력 논리로 합류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식민지적 조건 아래 변용, 굴절, 전환 등의 과정을 거친 이러한 지식인층의 논리들은 이후 해방과 함께 다시 한번 일대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주제어: 동아일보, 인적구성, 자본・경영진, 편집진, 사설필진.

1. 머리말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는 급격한 세계정세 변동 및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방식 고도화와 더불어 그 이전 시기와는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이 형성되고 있었다. 신문과 잡지지면을 무대로 활동하던 지식인들도 이 시기에 이르러 급격한 사상적 변용과 굴절을 보이게 되었고, 조선총독부의 검열제도, 언론의 상업적 측면, 대중적인 여론 등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아일보』 또한 제한적이나마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공론장 역할을 하는 한편, 그 주도층은 언론이 지닌 사회비판적 기능을 통해 식민지 내부에서 나름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의 사설을 통해 1930년대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문화운동론과 그들의 정세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도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1] 이러한 연구들은 대공황 이후 식민지 조선이 처한 시대적 조

건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운동세력 또는 지식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송진우, 이광수처럼『동아일보』를 대표하는 주류적 인물이 지닌 사상적 입장과 사설의 주장을 그대로 등치시켜 인식했고, 사설에 드러나는 논리의 혼재나 착종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를 야기하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 이루어졌을 뿐 필진구성에 대한 고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당시의『동아일보』를 단일한 정치세력의 기관지처럼 인식할 경우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다층적이며 복잡했던 실상과는 동떨어지게 될 여지가 있으며, 사설 필진과 주요 편집진 내부의 사상적 편차는 사상(捨象)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사설의 특성상, 주도층의 범주와 필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설과 특정 인물의 입장을 등치시켰을 때에는 부조적 인식의 심화나 해석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일련의 연구성과가 축적된 파시즘 인식 관련 연구에서도 이광수의 주장에 나타나는 파시즘적 논리가 그대로『동아일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2] '파시즘적 경향의 사설=이광수의 입장'이라는 전제와 함께

---

1) 이 시기『동아일보』계열의 정세인식과 문화운동론에 대해 살펴본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임경석,「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역사와 현실』제11호, 한국역사연구회, 1994; 이지원,「1930년대 前半 民族主義 文化運動論의 性格」,『국사관논총』제5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파시즘기 민족주의자의 민족문화론」,『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김명구,「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2, 제5장 1930년대 부르주아 민족운동 좌·우파의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이태훈,「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국제정세인식과 파시즘 논의」,『역사문제연구』제19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홍종욱,「1930년대『동아일보』의 국제정세 인식—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5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조규태,「1930년대 한글신문의 조선문화운동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6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윤덕영,「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체제 비판에서 체제 굴종으로—」,『사학연구』제108호, 한국사학회, 2012 등.

그리고 이와 함께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연구성과들에서도『동아일보』의 사설이나『동아일보』의 구성원들의 문화운동론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이지원의 선행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지원, 앞의 글, 1994; 앞의 글, 2005. 이 시기 이광수의 사상적 입장이『동아일보』주도층의 민족문화론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광수가 당시 주도층의 일부로서『동아일보』사설의 논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본고 또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이광수의『동아일보』재직

송진우 중심의『동아일보』세력을 사설에 나타나는 파시즘적 논리와 분리시키고자 하였다.[3] 이는『동아일보』계열이라는 단일한 정치세력의 입장이 시간의 흐름이나 계기적 사건에 대응하여 변하게 된 것으로 보거나 사설 집필의 주체를 송진우계와 이광수계로만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동아일보』를 구성하고 있던 주체나 그 주체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4] 그 구성원, 특히 사설 필진에는 제한적이나마 송진우, 이광수와는 주된 활동 영역이나 사상적 입장을 달리했던 인물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설에 나타나는 인식상의 혼재와 착종 또한 이러한 필진의 중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설의 논조는 주도층의 허용범위 내에서 일정한 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이광수의 입장으로 규정되었던 파시즘적 논리 또한 일정한 폭을 형성하고 있던 논조의 일부이자 그 폭을 결정짓는 한 요소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5]

시기 사설에서 보이는 파시즘에 대한 입장 혼재나 이광수가『조선일보』로 이탈한 이후의『동아일보』사설논조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3) 이에 해당되는 연구로서 이태훈과 윤덕영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태훈, 앞의 글, 2008; 윤덕영, 앞의 글, 2012. 전자는 이광수·신흥우에 의해 부각된 파시즘적 논리가 민족주의계열 전반의 입장으로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후자는『동아일보』주도층의 세계정세인식이 반파시즘에 토대한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논의의 범주와 초점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두 연구는 1930년대 초반『동아일보』사설에 나타나는 파시즘적 경향을 이광수의 이념으로 특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파시즘에 대한 민족주의 계열 내부의 인식차이를 지적하고 당시 민족주의계열의 사상적 입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광수를 해당 시기『동아일보』주도세력과 분리시킬 경우에는 이광수 퇴사 이후에도 여전히 파시즘성이 내재된 논조가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사장 재임기의 송진우가 경영과 논조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과는 논리상 충돌이 발생한다.

4) 홍종욱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설에 나타나는 인식의 착종, 혼재를 지적하며 필진에 의한 견해차를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이 필진의 분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홍종욱, 앞의 글, 2009.

5) 논조의 폭은 개별 필진들의 사상적 입장 전체가 구명되어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존연구의 성과들을 미루어 판단하건대『동아일보』의 사설 중 1930년대 초반의 파시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반영된 사설들은 이광수가 집필했거나 그의 영향력이 논조에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30년대 초중반 이광수의 파시즘적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준식,「일제 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 인식 : 이광수의 경우」,『역사와 현실』제37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183-189면과 박찬승,「이광수와 파시즘」,『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373-378면. 한편, 최근에는 이 시기 이광수의 논리에 나타나는 파시즘적 성질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는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당시 이광수의 주장에 나타나는 파시즘적 논리를 두고 동우회라는 단체적 입장·공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나아가

이에 본고에서는 1930년대 『동아일보』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사상적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인적 구성과 그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과[6] 더불어 그 내부에서 사설을 직접 집필했던 필진 및 논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편집진의 중층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사설 필진의 중층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입장의 혼재와 착종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도층의 입장도 보다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구성원 상의 단절성이 보다 강조되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단절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속간 이후로 이어지는 연속성도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2. 1930년대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 구성과 변동

1) 자본·경영진의 구성

식민지기의 조선에서 전국 단위로 발행된 한글 민간신문은 그것이 간행될 수 있었던 기간(1920-1940) 내내 그 수가 3개 이하로 제한되었다. 이때 다른 두 신문이 여러 차례의 필화사건과 더불어 운영난에 따른 발행권·경영권 이동을 겪었던 것과 달리 『동아일보』는 수차례의 필화를 겪으면서도 실질적인 경영권의 이동은 사실상 겪지 않았다.[7] 이는 『동아일보』가 김성수라는 안

반사회주의적 대응으로서의 측면과 전략적 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보다 부각하고자 하였다.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어문연구』 제35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 민족파시즘론 재고」, 『대동문화연구』 제10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 시기의 이광수의 주장을 두고 파시즘의 발현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의 주장에 내재된 파시즘적 경향성들을 조명하거나 이러한 파시즘적 논리들이 전향 이후에 일제의 선전논리 수용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일반적으로 회사조직의 구성에 관한 연구는 주주(대주주)와 경영진 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본고에서는 최대 주주인 김성수와 여타 경영진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자본·경영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김성수와 경영진들을 하나의 범주로서 다루기 위한 편의적 표현이며, 엄밀한 개념화 과정을 거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김성수가 자본구성을 사실상 전담하고 그 외에 대부분 경영진들이 중역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정도(100주 이상)의 지분만을 가졌던 상황에서, 개별 주주들의 역할은 살펴보기 힘든 당시 『동아일보』의 지배구조를 일정 부분 반영한 표현임을 밝혀둔다.

정적인 지주·자본가를 배경에 두고 있었으며, 박영효·송진우·백관수 등 김성수와 밀접한 교우관계를 지닌 이들이 핵심경영진에 포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창립주이자 최대주주였던 김성수는 송진우를 비롯하여 경성방직, 보성전문학교, 중앙학교, 해동은행 등에서 활동하거나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과 함께, '조선의 미쓰비시(三菱)라는 김씨 재벌'[8] 또는 '김성수 콘체른'[9] 등으로 일컬어질 정도의 안정적인 자본과 넓은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아일보』 주도층의 인적 관계망은 1920년대 이전부터 이미 형성된 것이었으며, 해방 이후 한민당이 남한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10]

〈표 1〉 1930년대 『동아일보』의 경영진 및 대주주[11]

	1931	1932-1933	1934-1935
취체역 사장	송진우	송진우	송진우
부사장	장덕수	장덕수	장덕수
취체역 (이사)	김성수 양원모 이광수 임정엽 김용무	김성수 양원모 이광수 임정엽 김용무	김성수 양원모 임정엽 김용무
감사	장현식 현상윤	장현식 현상윤	장현식 현상윤
영업국장	양원모	양원모	양원모
대주주*	김성수(3000) 김상연(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610) 김상경(550) 임정엽(530)	김성수(3000) 김상연(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610) 김상경(550) 임정엽(530)	김성수(3000) 김상민(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760) 김상경(550) 임정엽(730)

7) 이승훈이 일시적으로(약 5개월) 사장직에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식민지기의 『동아일보』는 박영효, 김성수, 송진우, 백관수 등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인적관계망 내에 포함된 이들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비록 재임기간은 짧았으나 이승훈의 사장옹립은 1924년 당시 『동아일보』의 사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개혁운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 시기 『동아일보』의 개혁운동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장신,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통권 제7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8) 孟虎聲, 「人物月評(3) 東亞日報社長 宋鎭禹論」, 『비판』 1권 6호, 1931.10, 93면.

9) 이광수, 「人物月旦, 金性洙論」, 『동광』 제25호, 1931.9, 24면.

10) 해방 이후 한민당의 주축이 되는 『동아일보』 계열의 인적관계망을 형성하는 토대로서 1910년대 중반부터 조직된 지역기반의 친목회와 일본에서의 유학생 학우회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박태균,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제5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95면.

11) 日本電報通信社 편, 『신문총람』 제24판,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1932; 제25판, 1933; 제27판, 1935; 제28판, 1936; 제31판, 1939; 제32판, 1940;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3; 1935; 1939; 1941.

	1936 〈정간 당시〉	1937 〈복간 당시〉	1938-1939	1940 〈폐간 당시〉
취체역 사장	송진우	백관수	백관수	백관수
부사장	장덕수			
지배인	양원모	임정엽		
취체역 (이사)	김성수 임정엽 김용무	장덕수 김용무 현준호	임정엽 장덕수 양원모 김용무 현준호	임정엽(상무) 장덕수 양원모 김용무 현준호
감사	장현식 현상윤	장현식 현상윤	현상윤 장현중	현상윤 장현중
영업국장	양원모	임정엽	임정엽	국태일
대주주	김성수(3000) 김상민(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760) 김상경(550) 임정엽(730)	김성수(3000) 김상민(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760) 김상경(550) 임정엽(730)	백관수(3000) 김상민(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760) 김상경(550) 임정엽(730)	백관수(3000) 김상민(1442) 김재수(1000) 이아주(1000) 김연수(836) 고현남(760) 김상경(550) 임정엽(730)

* ( )안은 보유 주식수이며,『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3년, 1935년, 1937년, 1939년, 1941년판 기준이다. 이에 대주주 정보의 경우 기록의 시기와 정간, 복간, 폐간 시기와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음을 밝혀둔다. 다만 변동이 많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이 1930년대 내내 김성수와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인적관계망에 속해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음은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무(무안), 백관수(고창), 양원모(담양), 임정엽(보성), 장현식, 장현중(이상 김제), 현준호(영암) 등 경영진의 대부분이 호남지역에서 출생하거나 기반을 호남에 두고 있는 지주계급의 인물이었다.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이광수, 현상윤)에도 일본 유학시기의 유학생학우회 활동과 광문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성수, 송진우 및 그 주변의 인물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12]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용무는 1920년대에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30년대에는『동아일보』와 보성전문의 이사로도 활동하였고, 1935년 신입생 초과입학문제로 김성수가 보성전문의 교장직을 사임했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았던 인물이다.[13] 그리고 유년기부터 김성수・송진우와 교류했던 백관수

12) 다만 김성수의 회고에 의하면 이광수와는 같은 시기에 와세다에서 수학하지 않았으며, 현상윤, 김병로와도 동급생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성수,「大學時代의 學友들」,『삼천리』제6권 5호, 1934.5. 송진우 또한 광문회시절에 이광수를 처음 만났다고 회고하였다. 송진우,「交友錄」,『삼천리』제7권 5호, 1935.6.

13) 이후 1937년 김용무가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김성수가 교장직을 맡게 된다.「普專校長更迭 金性洙氏就任」,『매일신보』, 1937.5.27.

의 경우 신간회 해소 이후 잡지『동방평론』간행, 유적보존운동, 조선체육회 활동 등 문화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동아일보』주도층과 교유관계를 이어갔고, 총독부의 승인 아래 1937년『동아일보』사장직을 맡게 된다.[14] 양원모 역시 일본 유학시기부터 김성수・송진우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1921년부터 1936년 정간 이전까지 서무국장, 영업국장, 이사(취체역)로서『동아일보』의 재정업무를 도맡았으며, 1937년 속간 당시 양원모의 뒤를 이어 지배인 겸 영업국장을 맡았던 임정엽도 1927년부터 이미 대주주이자 이사로서 활동해왔던 인물이다.[15] 또한 1925년부터 1937년까지 10년 넘게 감사직을 유지했던 장현식은 김제 금구의 '서도 장씨(西道 張氏)'로 불리던 지주가 출신으로,[16]『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되었던 1921년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중앙학교의 설립・운영에도 참여하여 1929년에 중앙학원이 법인으로 설립될 때에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장현중은 1937년 장현식의 뒤를 이어 폐간 때까지 감사를 맡게 되는데, 그 역시 장현식과 같은 서도 장씨의 일원이었다.[17] 이와 함께 담양의 대지주 출신 현준호도 영학숙, 창평학교시기부터 일본 유학시기(메이지대 법과)까지 김성수・송진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8] 그는『동아일보』의 창립 초기에

14) 소년시절 백관수와 김성수・송진우 사이의 친우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오수열,「근촌 백관수의 생애와 정치이념」,『한국동북아논총』제16권 3호, 한국동북아학회, 2011, 110-111면.

15) 임정엽의 부친인 임양온은 호장출신으로, 한말에 법부 서기를 지낸 보성지역의 대지주이다. 이두황,『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3책 1894년 12월 18일; 박찬승,「한말 호남학회 연구」,『국사관논총』제5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표1, 표3 참고. 이후 도평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역 내 유지로서 여러 사회사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한말에 임양온이 활동했던 호남학회에는 김성수의 친부 김경중, 송진우의 숙부 송육, 고재욱의 조부 고정주 등도 참여했는데, 이러한 선대의 유대관계도 임정엽의『동아일보』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서도 장씨는 장기건(14대)을 입향조・분파조로 하여 전북 김제군 금구면 서도리 일대에 집성촌을 이룬 장씨 집단을 의미하며, 인동장씨 내에서는 금구파로 분류된다. 장현식과 장현중(이상 31대)은 장석보(26대)의 후손으로, 그중 장석보의 종손인 장현식은 조선어학회에 관계하기도 했다. 구술 및 기록을 바탕으로 장석보 이래의 서도 장씨 7대를 다룬 연구서로서 김명엽,『서도에서 길을 찾다』, 민속원, 2013이 참고된다.

17) 장현식과 장현중은 별도의 회사체로서 동아산업(동아양조)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동아산업에서도 김병로, 김용무 등『동아일보』와 관계된 호남지역 인사들이 1930년대 이래 이사와 감사 등의 중역으로 활동했다. 東亞經濟時報社 편,『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1; 1933; 1935; 1937; 1939; 1941; 1942.

18) 현준호는 고정주가 설립한 영학숙에서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등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 유학시절 김성수, 송진우는 물론 김연수, 윤정하 등과도 교류하였다. 또한 1917년 현준호의

도 자본・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었으며, 경성방직에도 관여하고 있다가 1937년 『동아일보』의 속간과 함께 감사역을 맡게 되었다.

비록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이광수의 경우에도 사주인 김성수와는 와세다 동문으로, 송진우와는 유학생학우회와 광문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교분을 쌓았다. 이후 이광수는 상해임정에서 『독립신문』 간행에 참여하다 1921년 귀국하였고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이후 편집고문과 편집국장을 지냈는데, 특히 1930년 9월부터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기는 1933년 8월까지는 이사직과 편집국장직을 겸임하기도 했다. 이광수・문일평과 함께 '정주 3才'[19]로 불렸던 현상윤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유학시기부터 『동아일보』 주도층과 긴밀한 사이였다. 이후 유학을 마친 현상윤은 중앙고등보통학교의 교장직을 맡게 되며, 1925년부터 폐간 때까지는 『동아일보』의 감사역까지 맡아 『동아일보』 계열의 중심인물로서 활동하였다.[20]

한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서 확인되는 대주주들의 면모 역시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강고한 주도권을 확인시켜 준다.[21] 1936년 정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김성수가 총주식 1만 4천 주 중에서 3천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김연수(金季洙, 김경중의 5남, 김성수의 친동생), 김재수(金在

장남 현영익이 출생할 때에는 훗날 이광수의 후처가 되는 허영숙이 산파 역할을 맡기도 했다. 손정연, 『무송 현준호』, 全南每日出版局, 1977, 34면, 66면; 박이준, 「현준호의 자본형성 과정과 친일행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78-179면. 허영숙은 이광수가 와병 중인 1925년 『동아일보』의 학예부장을 대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면들은 『동아일보』 주도층 사이의 인적관계망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 「人材巡禮(第一編), 新聞社側」, 『삼천리』 제4호, 1930.1.

20) 현상윤의 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최선웅, 「1910-20년대 현상윤의 자본주의 근대문명론과 개조사상」, 『역사문제연구』 제21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염복규, 「식민지 지식인의 유교 이해와 근대주의: 기당 현상윤의 경우」, 『사학연구』 제104호, 한국사학회, 2011; 이태훈, 「해방 후 현상윤의 유학인식과 사상적 경향」, 『한국사상사학』 제3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1; 류시현, 「일제강점기 현상윤의 문명론과 조선 문화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62집, 호남학연구원, 2017 등.

21) 1920년대 초반에 이미 김성수는 937주의 주식을 보유하며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성수의 유학시절 선후배 및 경성방직의 대주주들이 분산적으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경택, 「1910・20年代 東亞日報 主導層의 政治經濟思想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69면. 그러한 가운데 1924년 사원들의 개혁운동으로 입지가 약화되자 김성수는 대규모의 주식을 매입하여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1927년 단계에 김연수, 김재수 등 김성수 일가의 소유지분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장신, 앞의 글, 2006, 261면.

洙, 김기중의 2남, 김성수의 양동생), 이아주(李娥珠, 김성수의 처), 고현남(高賢男, 김성수의 며느리), 김상경(金相卿, 김연수의 장녀, 김성수의 조카), 김상민(金相敏, 김연수의 2녀, 김성수의 조카)[22] 등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즉, 임정엽을 제외한 대주주의 대부분이 김성수의 친인척들이었으며,[23] 임정엽의 소유주식도 사실상 김성수의 우호지분이었다.

이러한 김성수의 지분소유 상황은 1936년에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장기간의 정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변동을 겪게 된다. 속간을 위해 자본·경영진의 구성을 두고 총독부와 조정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백관수가 김성수의 보유 주식을 승계하게 되었던 것이다.[24]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식의 대부분은 김성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3천 주를 승계하여 최대주주를 겸하게 된 사장 백관수가 김성수와 막역한 사이였으며, 김성수의 친인척들이 여전히 도합 5천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930년대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던 이들은 1910-1920년대를 거치며 이전부터 식민지 조선의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인물들이었고, 계급적으로는 지주·자본가적 토대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

22) 김상민은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 1937; 1939; 1941년판에 1442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책, 1931; 1933년판에는 동일한 수의 주식을 김상연(金相研)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성수·김연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소종섭, 「新한국의 가벌 #23」, 시사저널, 2015.4.23,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19(2019.05.20 검색).

23) 이외에 중역진들이 대개 100주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1936년 1월 기준으로 본문 〈표 1〉의 대주주 외에 문상우(300주), 양원모, 현준호, 현상윤, 송진우, 장덕수, 장현식, 이광수, 김용무(이상 100주), 윤치호, 박형병, 방응모, 김양수, 김동성(이상 10주)이 유력인사로서 『동아일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三千里機密室-內外情勢」, 『삼천리』 제8권 1호, 1936.1.

24)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東亞日報發行停止處分ノ解除ニ至ル經過」, 『思想ニ關スル情報綴』, 1937과 이를 분석한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채백,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28-31면. 이에 따르면 김성수는 자신과 친인척의 주식 중 4710주를 송진우에게 무상, 무조건으로 양도하여 송진우가 대주주로서 사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실패에 돌아갔다. 이후 총독부의 승인 아래 백관수가 후임 사장이 되자 그에게 주식이 양여되었고, 이로써 백관수가 사장 겸 발행인 겸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만 「東亞日報發行停止處分ノ解除ニ至ル經過」에는 백관수에게 4천 주의 주식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속간 이후 시기의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는 백관수가 3천 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 1000주는 다시 김성수의 친인척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지면에도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입장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고,[25] 특히 경성방직・보성전문학교・중앙학교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에는 철저하게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경성방직은 전기요금체계와 관련하여 경성전기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26] 경성전기의 부영화 문제는 이 시기 『동아일보』 사설이 무엇보다도 강경하고 선명한 입장을 취한 논제 중 하나였다. 그리고 1935년 보성전문학교의 신입생 초과 모집 문제로 벌어진 보성전문교우회와 『조선일보』 사이의 대립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대립으로 확전되었을 때에도 『동아일보』는 대외적으로 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한편,[27] 실제로는 사설을 통해[28] 우회적으로 방응모의 영흥임야불하에 대한 공세를 가했다.[29] 마찬가지로 교원과 학생사이의 분쟁을 계기로 전개된 중앙고보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주도 학생의 피검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철저하게 학교 측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30] 이는 일부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31]

2) 자본・경영진의 변동

김성수・송진우의 인적관계망을 토대로 구축된 『동아일보』 자본・경영진의 구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내내 큰 변동을 겪지 않았다. 다만 내외사정에 따른 자본・경영진의 부분적인 변동은 확인되는데, 그중 한 지점이 1933년 이광수의 이탈이며 다른 하나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경영진의 교체였다.

먼저, 이광수의 이탈은 1933년 8월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이동하면서 이

25) 19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는 김경택, 앞의 글 참고.
26) 오진석, 「1930년대 초 전력사업 공영화운동과 경성전기」, 『사학연구』 제94호, 한국사학회, 2009, 187면 참고.
27) 「半島 言論界・學界 稀有의 不祥事」, 『삼천리』 제7권 7호, 1935.8.
28) 「국유임야처분을 신중히 하라」(사설), 『동아일보』, 1935.6.21.
29) 「半島 言論界・學界 稀有의 不祥事」, 『삼천리』 제7권 7호, 1935.8; 昇黑龍, 「朝鮮・東亞의 衝突은 商人根性의 爆發」, 『신동방』, 1935.10, 24면.
30) 「중앙고보생의 불근신한 행동」(사설), 『동아일보』, 1935.2.22.
31) 昇黑龍, 「朝鮮・東亞의 衝突은 商人根性의 爆發」, 『신동방』, 1935.10, 27면.

루어진다. 다만 이는 중역진에서 이광수 개인이 빠진 것으로서, 경영 차원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1920년대부터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광수가 지닌 상징성과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변화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32] 경영차원의 큰 변동이 아니었다는 점은 1936년 단계까지 이광수가 김용무, 송진우, 양원모, 현상윤 등 다른 중역들과 동일한 수(100주)의 주식을 보유하며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33] 그러나 뒤에서 언급될 여러 필진・편집진의 이탈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이탈은 그 파급이 적지 않았다.

한편, 『동아일보』에 재직할 당시 이광수는 송진우가 가장 신임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34] 외부에서는 그를 두고 편집국장을 초월한 존재이자 송진우의 상담역이라고까지 언급했다.[35] 이처럼 송진우와 긴밀했던[36] 이광수가 경쟁신문으로 옮겨 간 것은 수양동우회(동우회)계열[37]의 세력을 확장해보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38] 따라서 당시 이광수의 『조선일보』 이동과 『동아일보』

32) 윤치호는 이광수의 『동아일보』 이탈을 두고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지적하는 세평을 일기에 기록하였으며, 그 또한 이광수가 『동아일보』를 떠나는 당일 송진우에게 언급했다면 '버르장머리 없는 처신'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623-624면;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243-244면.

33) 「三千里機密室-內外情勢」, 『삼천리』 제8권 1호, 1936.1.

34) 白菱(채만식?)의 언급에 따르면 당시 송진우는 이광수, 주요한, 설의식 3인을 사내에서 가장 신임하고 있었다. 白菱, 「東亞社長 宋鎭禹氏面影 : 人物月旦 (1)」, 『혜성』 제1권 1호, 1931.3.

35) 洛陽閒人, 「東亞・朝鮮・中外 三社 編輯局長漫評」, 『혜성』 제1권 3호, 1931.5, 123면.

36) 이광수는 『조선일보』로 옮기기 직전인 8월 초까지도 송진우와 함께 일본신문협회의 일원으로서 대련박람회와 만주시찰에 참여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만주시찰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홍순애, 「이광수 기행문의 국토여행의 논리와 공간 정치의 이데올로기—「만주에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70호, 국어국문학회, 2015, 489-490면 참조.

37) 수양동우회는 1929년 동우회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당시 단체의 공식 명칭은 동우회인데, 본고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이전 경력과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이하에서는 수양동우회로 지칭하고자 한다.

38) 이광수는 『조선일보』로 옮긴 직후, 『삼천리』 기자와의 대담에서 안정화된 『동아일보』보다는 창업 초기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자신이 힘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이라는 명분과 함께 방응모와 주요한과의 관계로 인해 『조선일보』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光洙氏와 交談錄」, 『삼천리』 제5권 9호, 1933.9.

주도층과의 사상적 입장 차이를 연동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이광수와 송진우는 양자 모두 혁명적 노농운동과 같은 사회주의적 대중운동 확대에 대응하여,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실천운동으로서 민족주의 표현단체의 결성을 주장하며 충무공기념사업, 단군릉수축사업 등의 고적보존운동, 문맹퇴치운동, 생활개선운동 등의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었다.[39] 그러한 문화운동의 사상적 기반은『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을 비롯한 민족주의 우파세력이 1920년대 이래 지녔던 민족관, 사회관, 정치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40]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자립론과 협동조합론, 상공업중심주의 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논리로서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41] 이에 당시에도

39) 이 시기『동아일보』및 이광수의 민족문화론과 수양동우회계열의 민족문화론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이지원, 앞의 글, 1994; 앞의 글, 2005; 조배원,「修養同友會·同友會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53-55면. 이지원의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시기 민족문화론에는 사회주의 및 일본주의에 대한 저항성과 전체주의적, 반계급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파시즘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족문화론에 내재되거나 이와 연동된 강력주의, 노자협조주의, 지도자론, 중추계급·중간계급으로서의 지식인론 등은 파시즘적 논리와 친연성을 지니고 있었고, 수양동우회나『동아일보』계열 모두 파시즘을 두고 역사발전의 한 단계로 파악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동아일보』사설에서는 그 구성원의 '제한적 중층성'으로 말미암아 파시즘에 대한 인식·전망 차이가 반영되어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동아일보』사설에 나타나는 파시즘론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한편 민족문화론이 지닌 파시즘성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전개된 조선학운동이 지닌 양가성(민족적 동일성의 회복과 파생담론으로서의 식민 지배의 논리 귀착)을 지적한 연구나 "한편으로는 '민족파시즘'이나 '반동적 복고주의'의 혐의도 분명히 가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병구,「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민족문학사연구』통권 3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6; 천정환,「초기『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민족문학사연구』통권 36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212면.

40) 1920년대『동아일보』주도층의 민족관·사회관에 대해서는 김경택, 앞의 글이 참고된다. 또한 1920년대『동아일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논의(민주주의론)와 관련하여 이들이 수용한 다이쇼 데모크라시 자체의 제도개혁적·정신개혁론적 한계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관념론적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많은 부분이 참고된다. 이태훈,「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활용—일본 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제56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41) 이 시기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자립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방기중,「1930년대 物産奬勵運動과 民族·資本主義 經濟思想」,『동방학지』제115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2; 이상의,「일제하 미국유학생의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노동관」,『역사교육』제119집, 역사교육연구회, 2011; 장규식,「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근대지식 수용과 국민국가 구상」,『한국근현대사연구』제

정운영, 김약수 등의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동아일보』와 수양동우회가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던 것이다.[42]

1933년 8월 이광수의 이탈과는 달리 1936년 8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경영진의 변화는 김성수·송진우의 거취와 직결된 문제로서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총독부는 송진우의 인책사임과 사내 요시찰인물, 사건관계자의 면직 등을 요구했는데, 『동아일보』의 주도층은 그러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는 한편 사내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권 내의 인물에게 후임사장을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성수와 송진우의 입장을 대리하면서 총독부의 승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사를 찾기는 어려웠다.[43] 결국 시간이 흘러 폐간의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자 『동아일보』는 중역회의에서 결정된 사장후보(백관수, 옥선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총독부 당국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약속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조건부로 백관수의 사장임명이 승인되었다.[44] 그리고 곧이어 총독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양도수속이 이루어졌으며, 임시주총에서는 송진우와 김성수의 공석을 백관수와 현준호가 메우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의 권한을 양도 받은 백관수나 새로 이사진에 합류한 현준호 역시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동아일보』 자본·경영진의 인적관계망에 속한 일원이었다. 또한 김성수의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김성수의 처조카인 고재욱이 편집국차장이자 사설필진으로서 핵심

3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등. 그리고 동시기 협동조합론에 대해서는 조형열의 연구 등이 참고된다. 조형열,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협동조합론」, 『한국사학보』 제61호, 고려사학회, 2015.

42) 『삼천리』에 수록된 대담문에 의하면 정운영(鄭雲永)은 『동아일보』와 흥사단이 접촉하여 세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두전(김약수) 또한 두 세력의 사상과 실천이 엇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誌上 三千里全體會議, 第一部門=民族問題, 現下의民族主義勢力과社會主義勢力」, 『삼천리』 제4권 3호, 1932.3.

43) 『동아일보』는 후임 사장으로 양원모, 장덕수, 고재욱, 김용무, 김병로, 김연수, 문상우 등을 추천했다. 그러나 양원모, 장덕수, 고재욱, 김용무, 김병로는 김성수·송진우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총독부가 승인하지 않았으며 김연수, 문상우는 총독부가 승인했으나 당사자 본인들의 거절로 인해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백, 앞의 글, 30면.

44) 「東亞日報發行停止處分ノ解除ニ至ル經過」, 『思想ニ關スル情報綴』, 1937.

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송진우 역시 속간 직후인 1937년 6월 9일 사내 고문직을 맡게 된다. 경영일선은 아니었으나 김성수와 송진우는 여전히 사내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그 간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1930년대 말 학예부 기자와 서무부장을 지냈던 정래동의 회고는 송진우가 고문을 맡고 있던 시기에도 편집과 관련하여 사후평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김성수도 지면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5] 또한 1939년 송진우의 발탁과 추천으로 이루어진 이상돈의 입사는 그가 여전히 인사와 관련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46]

이 같은 영향력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암묵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1940년 총독부로부터 자진 폐간을 요구받았을 때 송진우가 직접 일본의 요인들을 만나 교섭을 시도했고 뒤이어 벌어진 '『동아일보』 경리부정사건'에도 관련자 중 한 명으로 검거되었던 것이다.[47] 폐간 이후 『동아일보』 청산위원장이 되고 청산위원회의 뒤를 이어 설립된 동본사[48]의 사장을 맡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송진우가 사내 사정에 밝고 여전히 내부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김성수·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은 1930년대 내내 공고하게 유지되었고, 일장기 말소 사건과 장기간의 정간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표면상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계속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

45) 정래동, 「舊友回顧記—社內가 떠들썩했던 讀者慰安大會」, 『동우』, 1970.4.30; 「동아일보 사람들-정래동」, 동네:동아미디어그룹 공식블로그, 2018.12.27, http://dongne.donga.com/2018/12/27/90-동아일보-사람들-정래동/(2019.08.18 검색) 참고.

46) 이상돈, 「舊友回顧記—東亞 그때 그 시절」, 『동우』, 1979.8.31; 『동우』, 1970.4.30; 「동아일보 사람들-이상돈」, 동네:동아미디어그룹 공식블로그, 2018.12.24, http://dongne.donga.com/2018/12/24/70-동아일보-사람들-이상돈/(2019.08.18 검색) 참고.

47) 『동아일보』의 폐간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장신,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역사문제연구』 제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48) 동아일보사는 1943년까지도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16일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존립시기를 1943년 1월 1일부로 30년간으로 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차 및 관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본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商業登記」, 『조선총독부 관보』 4877호, 1943.5.8, 5면.

3. 1930년대 『동아일보』 사설 필진 · 편집진의 구성상 성격과 변동

1) 사설 필진 · 편집진의 '제한적 다층성'

『동아일보』를 주도한 자본 · 경영진은 창간 초기부터 경영권을 토대로 내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신문지면은 그들의 정치 · 경제적 입장을 반영하는 식민지 내부의 정치활동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일보』는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기관지적 성격을 일면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이 처한 조건에도 큰 변동이 찾아온다.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체제의 변화, 대공황 이후의 정치 · 경제적 정세변화는 주도층 내부의 사상적 입장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 민간 신문이 처한 조건과 기능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경무국 내의 도서과 설치 이후부터는 검열체제가 항상적 변수가 되면서 그 정치적 기능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49] 더욱이 신문사들 사이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전개되었던 상업적 측면, 기업적 성격의 강화도 더 이상 주도층의 기관지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식민지 내부의 정치적 지지세력 확보는 여전히 필요했고 판매부수나 광고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독자층 확보책도 필요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식민지 조선 내 여러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했던 것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중을 각성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중앙 민간지는 그러한 면에서 영향력이 크고 가장 확실한 창구이기도 했다. 이에 학계의 오천석, 유진오(이상 보성전문), 노동규, 백남운, 정인보(이상 연희전문) 등 여러 외부 필진들이 『동아일보』의 객원으로서 기명논설을 집필했고,[50] 『동아일보』의 내부에도 계열을 달리하는 운동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는 인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51] 그리고 이들 내부인사의 일부는 당시 언론의 상업성과 자본 · 경영

49) 일제의 식민지 검열체제 대해서는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 제도 · 텍스트 · 실천』, 소명출판, 2011과 이에 참여한 필자들의 여러 관련 연구성과들이 참고된다.
50) 「本社客員 延專과 普專에서 五氏」, 『동아일보』, 1933.10.17.

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닌 상태로 언론활동을 이어 가고 있었다.[52]

이처럼 1930년대 『동아일보』의 필진·편집진은 그 나름대로 중층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 구성은 총독부의 검열체제, 자본·경영진의 주도권 아래에서 형성된 '제한적 다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필진·편집진들은 총독부 또는 사측이 만들어내는 제약 아래에서 사설이나 기사, 지면편집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그러한 주장들을 현실과 조화시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논조를 결정할 주도권을 지닌 자본·경영진들이 식민지 조선 내부에서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수의 독자대중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필진·편집진의 '제한적 다층성'은 특정 부문에 있어서 내부적 견해 차이 표출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자본·경영진의 실제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허용범위 내에서는 지상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53]

당시 『동아일보』는 여느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불편부당'을 표방하고 있었

51) 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김성수와 송진우는 김병로, 김용무, 백관수 등과 함께 젊은 세대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한다. 유진오, 김광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적 입장의 김성수, 송진우와 논전을 벌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젊은 세대에 『동아일보』의 일부 신진기자·필진·편집진들도 포함되었을 것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유진오, 「양호기」 (7), 『고우회보』 제15호, 1971.10, 7면.

52) 『동아일보』의 지방부장인 박찬희는 1930년 초반의 한 설문에서 자본·경영진의 상업적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였으며, 총독부 출입기자였던 김동진도 영업중심화·자본화함에 따라 신문이 이전과 같이 지도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朝鮮言論界에 對하야」, 『동광』 제34호, 1932.6; 김동진, 「내가 본 三不可思議」, 『별건곤』 제27호, 1930.3; 「신문기자 10년 波瀾史—慘敗의 悔恨錄」, 『삼천리』 제4권 7호, 1932.7. 이여성 또한 『동아일보』 입사 이전 『조선일보』에서 활동할 당시 신문사의 확대와 더불어 社說이 私說화한다는 평가가 있음을 언급하며, 언론에서 공론적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여성, 「평론문제에 대하여」, 『철필』, 1930.9; 홍병철 편, 『학해』, 학해사, 1937, 456-458면 재수록.

53) 이는 기본적으로 1930년대 신문이 가진 상업적 성격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1930년대 한글신문의 상업성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박용규, 「일제하 민간지 기자집단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직업의식과 직업적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4장 3절 기업화와 논조변화의 특성; 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통권 7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다만 이러한 상업적 성격과 더불어서 각 필진들의 사상적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54] 신문사의 입장에서 1930년대 들어 가속화된 신문의 상품적 성격 강화는 곧 선명한 주의·사상의 표현보다는 독자와 광고주를 확보하고 보다 광범위한 여론적 지지를 요청할 수 있는 확장성 획득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지식인들이 여론을 형성·표출할 때 명분을 제공해줄 대상은 대다수의 농민들이었고, 그 결과 주도층의 입장을 반영한 생산증진론·공업화론과 함께 농민적(소농적) 입장을 반영하는 주장들도 사설란에 무리 없이 게재될 수 있었다.[55]

이 시기의 사설은 주필이나 편집국장을 주축으로, 각 분야에 정통한 부장급 인사나 논설기자들이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56] 자본·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필진에는 자신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들과 식민지 내에서의 헤게모니 확보나 상업적 안정성을 위한 지지층·독자 확장의 기반을 제공해줄 인물들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그중 후자의 필진들은 주도층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논리를 지면에 반영했다.

실제로 『동아일보』의 사설 필진과 편집진들은 각론 차원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고영환의 경우 자본주의적 경제조직 아래에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지만 경제조직과 사회제도를 전부 다른 방식으로 고친다면 전쟁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57] 공황극복책과 관련하여서도 자본주의적 산업합리화(노동착취강화)로는 공황극복은 불가능하므로 '하등의 동적

54) 『신문총람』에는 신문사별로 정파·정당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1930년대 초·중반 조선 간행 신문들은 중앙지·지방지 여부, 민간지·어용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신문이 불편부당, 엄정중립, 중립불편을 표방하였다.

55) 사회주의계열의 농민획득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써, 민족주의계열도 점차 농민 교화·획득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음은 당시 총독부도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경무국, 「일제하 조선의 치안상황(1993년)」,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거름, 1984, 60-61면. 당시 농민층의 지지 확보 또는 농촌 안정화를 위한 총독부의 입장과 각 운동세력들의 농촌문제 타개책 및 지향에 대해서는 김용섭, 「일제강점기의 농업문제와 그 타개방안」,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5가 참고된다.

56) 「機密室(우리 社會의 諸內幕)」, 『삼천리』 제10권 10호, 1938.10. "이전에는 宋鎭禹, 安在鴻씨 등 사장 자신이 집필한 적이 왕왕 있었지만 최근은 대개 주필 혹은 논설위원반이 특설되어 그분들이 社의 의사를 대표하여 쓴다."

57) 고영환, 「전쟁시비론」, 『신동아』 제2권 2호, 1932.2.

변화(Dynamic change)'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58] 그리고 김장환은 국제연맹,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정치적 국제기관과 코민테른, 반제국주의 동맹 등의 계급적·민족적 기관을 구분하고, 전자보다 후자의 장래가 더욱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59] 이들은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을 수용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는 동시기에 순환론적 입장에서 공황의 해결을 낙관하고 자본주의의 회복을 전망했던 김우평, 서춘 등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었다.[60]

마찬가지로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 또한 단일하지 않았는데, 당시 『동광』에서 진행한 농촌구급책에 대한 설문의 응답에서 송진우와 김우평은 생산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함상훈은 분배개선의 차원에서 소작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며 강조점을 달리했다.[61] 생산증진론과 분배개선론의 관계는, 앞선 시기의 물산장려운동에서 표방되었던 생산증식론과 토산장려론의 경우처럼 상충된다기보다 상보적인 논리였고,[62] 조선의 경제자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다만 강조점이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였고, 이 시기 사설에서는 소작문제를 비롯한 분배차원의 구급책이 가장 급선무라는 주장이 반영되고 있었다.[63] 이처럼 경영의 핵심인 송진우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견해가 사설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자본·경영진과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허용범위 내에서 사설 필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여론'을 의식하여 보다 확장성이 큰 주장을 허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송진우는 경영의 핵심임과 동시에 안재홍과 마찬가지로 사설의 집필

58) 고영환, 「경제공황은 어느때 끗날까」(10), 『동아일보』, 1933.3.29.
59) 김장환, 「국제기관 양대계통 각자단결도모」, 『동아일보』, 1930.4.1.
60) 당시 김우평과 서춘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임경석, 앞의 글, 1994, 39-40면. 이처럼 1930년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던 고영환과 김장환은 193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계속해서 『동아일보』의 사설 필진으로 활동하는데, 이들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61) 「農村은 어대로」, 『동광』 제20호, 1931.4.
62) 방기중, 앞의 글, 2002, 50면.
63) 「연연증가하는 소작쟁의」(사설), 『동아일보』, 1930.12.7; 「농촌진흥책의 검토」(사설), 『동아일보』, 1932.10.14 등.

에도 관여하는 유형의 사장이었다.[64] 다만 이 시기에는 송진우가 직접 사설을 집필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일선에서 영향력 있는 사설을 집필하던 종전의 이미지는 계속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5] 학예부장을 지낸 서항석의 회고도 송진우가 직접 사설을 집필하기보다는 사내검열을 통해 사설논조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 당시의 사설은 정치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의 3부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회, 문화 부문이 내 차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나 경제에 관한 사설은 자칫하면 총독부의 검열에 걸리기 쉬우므로 사회·문화부문의 사설이 많이 나가게 마련이었고, 때로 정치나 경제에 관한 사설이 사장이나 주필이 보는 사내(社內) 검열에 통과하지 못한 때에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일도 항용 내게로 맡겨져서 나는 사설 쓰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다.[66]

당시 사설의 필자들은 집필지침이라 할 수 있는 사시(社是)에 토대하여 사설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시에 주요 경영진·편집진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였다. 그리고 사내검열은 총독부의 검열제도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히 사시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기능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사설의 논조는 필진들의 입장이 총독부의 검열체제와 사내검열을 거쳐서 나온 것이며, 그 수용 범위 안에서 일정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67] 사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검열제

---

64) 당시에도 직접 사설을 집필하며 신문의 내용적 측면에 관여하는 유형의 사장과 경영관리 위주의 활동을 했던 사장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1930년 초의 한 잡지 기사에서는 당시 민간지의 사장 3인을 두고 송진우를 전자형으로, 신석우(조선일보), 안희제(중외일보)를 후자형으로 언급했다. 「人材巡禮(第一編), 新聞社側」, 『삼천리』 제4호, 1930.1.

65) 다만 기념호의 사설이나 신년 연두사 형태로 게재된 사설들은 사장인 송진우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로서, 『신동아』의 창간호의 경우 송진우가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6) 서항석, 「나의 이력서」, 『경안 서항석 전집』 (5), 하산출판사, 1986, 1785면;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269면에서 재인용.

67) 이때 필자 개인의 자기 검열, 편집진 또는 자본·경영진의 사내 검열, 일제의 검열제도가 각각 전부 하나의 프리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자기 검열의 측면은 분석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개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다루기 힘든 측면

도와 그 주체에서부터 자본·경영진의 구성과 성격, 필진·편집진의 변화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설의 논조 변화와 구성원의 변동을 대응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제 필진들의 주장과 그 주장들의 폭을 연동하여 인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석에 비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동아일보』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아래에서 살펴볼 필진·편집진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집필주체와 사설의 주장을 대응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하다.

2) 사설 필진·편집진의 구성원과 그 변동

앞에서도 언급한바, 1930년대『동아일보』의 사설필진과 편집진은 자본·경영진에 비해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러한 중층성의 내부에는 자본·경영진의 경우와 같이 학맥과 인적 상관관계가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선 1920년대의 경험적,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 필진·편집진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변동은 자연히 자본·경영진의 변동에 비해 그 폭도 컸고, 횟수도 많았다.

〈표 2〉『삼천리』소재 1930년대『동아일보』사설 필진[68]

연도	주요 필진 (보조필진)
1931년	金祐坪 金章煥 徐椿 李光洙 朱耀翰 咸尙勳 (薛義植, 宋鎭禹)
1933년	高永煥 高在旭 薛義植 李如星 朱耀燮 玄鎭健
1934년	高永煥 高在旭 徐恒錫 薛義植 李如星 朱耀燮 (李殷相, 洪翼範)
1938년	高永煥 高在旭 徐恒錫 金章煥 梁在厦 全弘鎭 張鉉七

당시 잡지『삼천리』에서 언급되고 있는『동아일보』의 사설 필진은 위의〈표 2〉와 같다. 이를 대략적으로 참고하면 1933년 이전까지는 주로『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김우평, 김장환, 설의식)[69]과 수양동우회계열

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필진들의 사상적 성향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이다.

68)「新聞夜話」,『삼천리』제17호, 1931.7; 草兵丁,「大亂戰中의 東亞日報對朝鮮日報 新聞戰」,『삼천리』제5권 10호, 1933.10;「三千里 機密室」,『삼천리』제6권 7호, 1934.6;「機密室(우리 社會의 諸內幕)」,『삼천리』제10권 10호, 1938.10.

을 비롯한 서북지역 출신의 인물들(서춘, 이광수, 주요한)이 필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필진 구성은 1933년을 전후로 이광수와 서춘, 주요한, 함상훈 등이 『조선일보』로, 김우평이 『만몽일보』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꽤나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들이 이탈하면서 생긴 공백은 고영환, 고재욱, 서항석, 이여성, 현진건 등이 메웠다. 그리고 1934년에는 주요섭이 중국 보인대학에 임용되면서 필진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주요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필진들은 1936년의 정간 때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1936년 8월 말 총독부에서는 신문에 실린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설의식과 이여성, 현진건이 총독부의 압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 외에 고영환, 고재욱, 서항석, 김장환 등은 1937년 속간 후에도 다시 사설의 필진으로서 활동하였고 양재하, 전홍진, 장현칠[70] 등 1930년대 전반에 입사한 신진기자들이 새로 사설필진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9년 기자로 입사한 이상돈은 당시 고재욱, 양재하, 최익한이 주로 사설을 집필하였으며 본인도 농업・소작쟁의 관련 사설을 간혹 집필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71] 최익한도 사설의 주요 필진 중 한 명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72]

---

69)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활발한 집필 활동을 했으며 민족문화론의 차원에서 『동아일보』와 유사한 입장을 지녔던 정인보도 1931년 5-6월 사이 충무공유적보존운동과 관계된 사설을 수차례 작성한 바 있다. 채관식, 「1930년대 '조선학'의 심화와 전통의 재발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37면; 최선웅, 「정인보와 동아일보—조선학을 둘러싼 접점」, 『한국인물사연구』 제23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201면 참고. 해당 사설들은 『담원 정인보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정인보, 『薝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 출판부, 1983.

70) 장현칠의 조부 또한 김제 금구 상신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또한 이사・감사를 지낸 장현식, 장현중과 같은 항렬로서 서도 장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 『매일신보』, 1937.10.12.

71) 이상돈, 「舊友回顧記—東亞 그때 그 시절」, 『동우』, 1979.8.31.

72) 한편 1943년 홍병철과 유찬근이 엮어서 발행한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에 최익한의 글 「반도과거교육제도」가 수록되었는데, 해당 글에는 최익한을 前 동아일보 조사부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외에는 그가 조사부장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최익한, 「반도과거교육제도」,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홍병철・유찬근 편, 만선학해사, 1943, 416면.

〈표 3〉 1930년대『동아일보』 주요 편집진 변동사항[73]

	1930	1931	1932	1933	1934
편집국장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8월)	송진우(겸임)
편집국차장		설의식 (편집국장대리)	설의식	설의식	설의식
정치부장	국기열	국기열	국기열	국기열	김장환
경제부장	서춘	서춘	서춘→김우평	서춘→고재욱	고재욱
사회부장	현진건	현진건	현진건	현진건	현진건
지방부장	박찬희	박찬희	박찬희	박찬희	박찬희
조사부장	김우평	김우평	김우평→서춘		이여성
정리부장	정우택	정우택	정우택	정우택	박만서
학예부장	이익상→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논설반	함상훈	함상훈, 주요한	함상훈	함상훈, 고재욱	황영모
	1935	1936〈정간 당시〉	1937〈복간 당시〉	1938-1939	1940〈폐간 당시〉
주필	김준연(2월-)	김준연			
편집국장	설의식(2월-)	설의식	백관수(겸임)	백관수(겸임)	고재욱
편집국차장			고재욱	고재욱	
정치부장	김장환	김장환	김장환	김장환	김장환
경제부장	고재욱	고재욱	고재욱	고재욱	고재욱(겸임)
사회부장	현진건	현진건		임병철	임병철
지방부장	박찬희	박찬희		임봉순	임봉순
조사부장	이여성	이여성			
정리부장	박만서		박만서	안승희	안승희
학예부장	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한편 주요 편집진들이 직접 사설을 집필하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에 편집진의 변동 또한 그 자체로서 필진 구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 이러한 편집진의 변동사항은 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진으로 언급한 인물 외의 편집진 변동을 살펴보면 1932년과 1934년 사이에는 김우평, 서춘의 보직교체와 정치부장(국기열→김장환)과 정리부장(정우택[74]→박만서)의 교체가

73) 日本電報通信社 편,『신문총람』 제24판,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1932; 제25판, 1933; 제27판, 1935; 제28판, 1936; 제31판, 1939; 제32판, 1940; 東亞經濟時報社 편,『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1; 1933; 1935; 1937;「人材巡禮(第一編), 新聞社側」,『삼천리』 제4호, 1930.1;「三新聞의 陣營」,『동광』 제28호, 1931.12;「三千里機密室」,『삼천리』 제6권 8호, 1934.8; B기자,「동아일보내용조사기」,『신인문학』 제2호, 1934.10. 기타『동아일보』의「본사 사령」·「사령」·「소식」 등.

74) 1889년생으로 강제병합 이전에『대한매일신보』에서 통신원, 중서농포동(中署農圃洞) 지사장을 지냈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강제병합 이후에는 총독부의 기관지가 된『매일신보』의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과장, 사회부장을 거쳤고 1921-1923년까지는『매일신보』의 편집겸 발행인을 지냈다. 그 후『동아일보』로 옮겨 1925-1932년까지 정리부장을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이루어졌으며, 1934년 출옥 직후부터 『동아일보』의 고문직을 맡았던 김준연이 1935년 2월부터 주필을 맡게 되었다.[75] 또한 속간된 이후 임봉순과 임병철이 각각 지방부장과 사회부장직을 맡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일장기 말소 사건 이전의 필진・편집진 구성을 살펴보면, 종전의 활동단체나 사상적 입장을 기준으로 세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과 경험・인식을 공유하며 그들을 대변하거나 그들과 유사한 입장을 지녔던 인물로서, 설의식, 김우평, 고재욱 등이 해당 된다. 설의식의 경우 호남출신은 아니나 1922년 『동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래, 1930년대 초반에는 편집차장 겸 편집국장대리로서 『동아일보』와 『신동아』의 편집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1935년 2월부터 1936년 정간으로 퇴사할 때까지는 편집국장을 지냈다.[76] 김우평의 경우 중앙학교 출신으로 미국유학(오하이오대학, 콜롬비아대학)을 다녀왔으며 수양동우회계의 『동아일보』 이탈과 동일한 시점에 『만몽일보』로 활동무대를 옮기게 된다. 그러나 일찍이 1920년대 초반부터 고영환 등과 함께 『동아일보』에 여러 글을 기고하였으며,[77] 출신지(전남 여수)나, 일찍부터 그와 친족들이 『동아일보』 여수지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실, 『조선일보』가 아닌 『만몽일보』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직 당시까지는 『동아일보』계열에 보다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78] 그리고 송진우와 동향(담양)이며 김성수의 처조카이기도 한 고재욱은 중

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4-1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224-225면.

75) 1920년 중반 송진우가 주필을 맡았던 시기 이후로 『동아일보』는 주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김준연이 주필을 맡게 되었는데,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 김준연이 퇴사한 이후 『동아일보』는 다시 주필 없이 사장 백관수가 편집국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사장 백관수의 편집국장 겸임 체제는 1939년까지 계속되었고, 1939년 11월에 편집국차장 자리에 있던 고재욱이 편집국장을 맡게 되었다.

76) 설의식은 해방 직후 복간된 『동아일보』에서 주간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민당의 모체인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보부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박용규, 「미군정기 중간파 언론—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제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992. 그리고 1947년에는 『동아일보』에서 나와 『새한민보』를 창간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한민당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77) 이태훈, 앞의 글, 2017, 81면.

78) 김우평은 1921년 동아일보 여수지국 기자로 있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조사부장,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김우평의 백부 김한

앙고보를 거쳐 교토제대(경제학부)에서 유학했고 졸업과 거의 동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그는 『조선일보』로 떠난 서춘을 대신하여 폐간까지 경제부장을 지냈으며 폐간 직전에는 편집국장까지 겸임했고, 해방 이후에 복간된 『동아일보』에서도 부사장, 사장, 회장을 지내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외에 와세다를 졸업한 고영환이나 제주출신의 김장환도 1930년대 초반에 기자로 입사하여 다수의 정치・경제 관련 기명논설을 작성했으며, 이들은 1937년 속간 이후에도 핵심 편집진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1930년대 전체를 『동아일보』에서 보냈다. 『동아일보』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이들은 대체로 자본・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호남지역을 성장배경으로 하거나 중앙학교・와세다라는 학맥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그룹으로서, 수양동우회계열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출신의 사설필진에는 이광수를 비롯한 주요한, 주요섭, 서춘 등이 해당된다. 이광수는 이미 1920년대에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동아일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1930년대에는 이사직과 편집국장직을 겸임하며 경영과 편집에 공히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광수와 함께 수양동우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잡지 『동광』의 출판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주요한 역시 이미 1929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까지 지낸 바 있었으며, 1930년대 초 당시에는 논설반 촉탁으로서 『동아일보』 사설집필에 참여하였다. 다만 1932년 11월 『조선일보』가 속간될 때 주요한이 먼저 편집국장 자리를 맡아 『동아일보』를 떠나게 되었고,[79] 뒤이어 이광수도 1933년 8월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겨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내게 된다. 주요한의 동생인 주요섭의 경우 1931년 12월부터 설의식과 함께 『신동아』의 편집에 참여하였으며,[80] 1934년에 북경 보인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채용되면서 『동아일보』를 떠나게 된다.[81] 그리고 평북 정주

영은 1920년 『동아일보』 여수지국 개설 당시 지국장이었으며, 숙부 김한성도 지국 총무를 지냈다. 또한 김우평의 형인 김인평도 여수지국의 고문을 지냈다. 최재성, 「1930년대초 김우평의 금융조합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123-124면.

79) 주요한이 1932년 6월까지도 『동아일보』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출전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로 옮기기 직전까지 논설반 촉탁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혜화 동아」, 『동아일보』, 1932.6.10.

80) 「편집후기」, 『신동아』 제1권 2호, 1931.12.

81) 주요섭의 경우 수양동우회계열의 주요 필진들이 『조선일보』로 이동할 때에도 『동아일보』에 남

출신의 서춘은 1926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는 조사부장과 경제부장 자리를 오고 가며 많은 수의 기명논설과 사설을 작성하였고 이광수, 함상훈 등과 함께 1933년 8월에 『조선일보』로 옮기게 된다.[82]

한편 1936년 정간 이전의 『동아일보』 사설 필진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민족주의 좌파적 입장의 인물이나 이전에 맑스주의를 학습하고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도 편집과 사설집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함상훈과 국기열, 이여성[83]과 김준연, 박찬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이들 역시 1930년대 초·중반에 『동아일보』의 핵심 편집진이자 사설의 주요 필진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함상훈은 논설반 소속 기자로서, 1930년대 초반 사설 필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사설집필을 수행한다고 언급되기도 하였다.[84] 그리고 당대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설들은 함상훈이 직접 집필했거나 그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85] 함상훈은 중앙학교·와세다에서

았다가 1934년 보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면서 『동아일보』를 떠난다. 주요섭은 인적 관계로는 수양동우회계에 속하지만 사상적 입장과 실질적인 활동 차원에서 수양동우회의 핵심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요섭은 앞서 수양동우회의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던 시기에 흥사단 원동위원부 소속으로서 향후 사회주의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 수양동우회의 중앙조직에서의 활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金鎬逸, 「1930年代 以後의 韓國—2절 獨立運動」,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76, 455면;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제28집, 서울대 국사학과, 1992, 218면. 수양동우회의 중앙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조배원, 앞의 글, 21-23면 참고. 주요섭에 대한 문학계의 인물사 연구에서도 그 사상적 경향성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면서도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으며, 호강대학에 재학 중이던 상해시절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사회주의적 경향성이 강했던 것으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82) 서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조형열, 「서춘, 일제와 운명을 같이한 경제평론가」,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제34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8.

83) 이여성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고된다. 최재성, 「일제 식민지기 이여성(李如星)의 민족운동」, 『사림』 제39호, 수선사학회, 2011; 신용균, 「李如星의 政治思想과 藝術史論」,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84) 「新聞夜話」, 『삼천리』 제17호, 1931.7.

85) 당시 함상훈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4원칙 중에서 이용고에 따른 배당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영리기관, 이윤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을 경영하며 출자고에 따른 배당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1인 1구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종교별, 주도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협동조합들의 통일적 연합도 강조하였다. 함상훈, 「협동조합의 조직과 실제방법」, 『혜성』 제1권 1호, 1931.3; 「협동조합운동의 과거와 전망」, 『동아일보』, 1932.1.1. 이는 『동아일보』 사설에도 개별 조합들의 지도자들을 중심

수학하고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의 선전부장으로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까닭에 『동아일보』-한민당계열의 인사로 이해되어 왔으며, 장기적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방 이전의 시기만 놓고 보았을 때는 단순히 『동아일보』 계열로 분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함상훈은 일본유학 시절 노농파 맑스주의자인 이노마타 츠나오(猪保津南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도 당시의 잡지지면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었다.[86] 게다가 1933년 8월에 이광수, 서춘 등 수양동우회계와 함께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겨 1938년에는 편집국장이 되었고, 『조선일보』 폐간 이후에는 『조광』의 대표 필진으로 역할하며 일제의 전시체제선전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 활동을 일제시기로 한정했을 때의 함상훈은 『동아일보』 계열이라기보다 필진 내부의 중층적인 사상적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1930년 초반에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활동한 협동조합운동의 핵심 이론가이자 1933년 이후에는 『조선일보』와 『조광』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중반부터 1936년 정간 때까지 10여 년간 『동아일보』에서 지방부장을 지낸 박찬희나, 송진우와 같은 담양 출신으로서 1923년부터 11년간 재직한 국기열도 북풍회계열로서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한 바 있었다. 이들은 김준연과 함께 1925년에 조선농민사 설립에도 가담하는 등 1920년대의 『동아일보』 자본・경영진과는 다른 경험적・인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인물 중 함상훈과 국기열이 1930년대 초반의 주요 필진

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고, 이윤(영리)기구로서의 성격 억제와 1인 1구 주의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농한기와 농민운동」(사설), 『동아일보』, 1931.1.24; 「불황과 협동조합운동」(사설), 『동아일보』, 1931.6.13; 「물가폭등과 협동조합운동」(사설), 『동아일보』, 1931.12.22 등.

86) 함상훈은 이노마타 츠나오가 와세다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했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고, 이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 한 설문에서도 함상훈은 정치상으로는 '민족XX주의'를, 경제상으로는 분배의 공평을 주장한다고 밝히며, H.G 웰스, 레닌, 이노마타 츠나오의 저서에서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諸氏의 聲明」, 『삼천리』 제6권, 1930.5. 다만 함상훈의 경우 혁명적 공산주의보다는 점진적 사회개혁론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ML계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른 노선을 취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민족주의 좌파세력과 사상적 공유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열, 「協同組合運動社의 조직 과정과 주도층의 현실 인식(1926-1928)」, 『한국사학보』 제34호, 고려사학회, 2009 참고.

・편집진이라면, 김준연과 이여성은 193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 편집진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김준연은 1928년 당시에도 편집국장 재임 중에 3차 공산당 책임비서로서 피검되었는데, 1934년 8월 출옥 직후에 편집고문직을 맡았고 곧이어 1935년 2월에 주필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김준연에 대해서는 출옥과 함께 급격한 사상전향을 거쳐 민족진영의 논객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87] 출옥 직후에 『동아일보』로 복귀했던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체포 당시 신원보증까지 자처할 정도로 긴밀했던 송진우와의 긴밀한 사적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88] ML계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총독부를 비롯한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형기간부터 일제 말기까지의 시기는 김준연이 기존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맑스-레닌주의에서 사민주의적 경향, 또는 사회정책론적 입장으로 전환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89]

---

87) 해방 전후 김준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상현, 「낭산 김준연의 민족운동과 해방 후 정치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해당 연구에서는 김준연이 출옥 이후 급격한 사상전환을 거쳐 민족진영의 논객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김준연의 사상적 입장을 판단할 자료는 많지 않다. 이는 아마도 김준연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의 집필을 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필로 재직하던 시기 『동아일보』와 『신동아』에 기명으로 기고한 글의 대부분이 과거의 체험과 일상적 감상을 기록한 수필류의 글이었다. 그중 오스발트 슈펭글러의 저작인 『서양의 몰락』에 대한 서평기사에서는 카우츠키의 영향으로 책을 읽게 된 동기와 반공주의적이면서도 맑스와 레닌의 업적은 인정하는 슈팽글러의 태도를 하나의 감상으로 기록했다. 이는 직접 사상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맑스주의와 연관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연, 「서양의 몰락을 읽고」 (1)-(7), 『동아일보』, 1936.5.14-22. 따라서 『동아일보』로의 복귀만으로 사상적 전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공산주의적 운동노선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공노선으로 급격한 사상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시 조사부장인 이여성이 매부인 김세용과 함께 출판한 『숫자조선연구』의 출판축하회 발기인의 면모 또한 여전히 김준연이 민족주의 좌파 또는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과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출판축하회는 김준연을 비롯하여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지배인인 김진호, 안재홍, 여운형, 노동규, 백남운 등 10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數字朝鮮研究』出版祝賀會」, 『조선중앙일보』, 1935.5.8; 「數字朝鮮研究 出版記念會合」, 『동아일보』, 1935.5.9.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해방 후 『인민해방보』의 주필을 지낸 인물로서, 3차 공산당 사건 당시 김준연과 함께 투옥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姜炳轍이 해방 직후 『현대일보』 지면에서 김준연을 비판하는 내용 또한 시사적이다. 강병철은 해당 글에서 김준연을 두고 『동아일보』 정간 이후 김성수가 소유한 전곡 해동농장의 관리인 생활을 하며 사상전환을 하게 된 것이냐고 비난하였다. 姜炳轍, 「愛國的良心을 가지라 金俊洲君의 講演을 駁함」 (上)・(中)・(下), 『현대일보』, 1946.7.12-14.

88) 「風聞集」, 『삼천리』 제6권 9호, 1934.9.

자본·경영진에 비해 상대적 급진성을 지녔던 필진·편집진들의 영향력은 1933년을 전후로 수양동우회계열 필진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종전보다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공황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민족주의 우파인 자본·경영진의 입장에서도 이전과 같은 순환론적 공황 이해만 가지고는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90] 그러한 결과로 1934년 후반부터는 이전과 달리 자본주의적 모순을 혁신적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가 사설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91] 1920년대 이래 보여주었던 철저한 현실·사실 중심의 인식과 달리 이상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92] 정간 직전 단계에는 문화주의적 토대 위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89) 이 시기 김준연에 대해서는 홍종욱의 기존연구에서도 토론자(박종린)의 지적을 반영하여 사설에 나타나는 사민주의적 경향이 그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 언급된 바 있다. 홍종욱, 앞의 글, 93면.

90) "아무리 보수적 자본주의자·자유주의자라할지라도 세계경제의 파국적 상황 속에서도 가파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소연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 같이 공황의 장기화와 더불어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의 성공도 이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수일, 「1920-30년대 산업합리화 운동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인식」, 『역사와실학』 제38집, 역사실학회, 2009, 187면.

91) 이 시기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혁신적 해결이라는 하나의 주장에는 다른 두 논리가 혼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현상타파론적 입장에서 기존의 모순된 자본주의 질서를 혁신하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자체를 대신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입장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동아일보』 사설의 논리에는 수정자본주의적인 전자의 입장과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후자의 입장이 공존·결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고재욱 등이 전자의 입장에, 이여성, 양재하 등이 후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재욱은 사회정책론적 입장에서 미국의 농사조정법(AAA)을 분석하며, 그 한계(목표 농산물 가격 측면의 소극성, 농산물가공업자에 대한 부담전가)를 지적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자본주의국가에서나 기도하지 못하였던 광범하고 대담한 농업구제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고재욱, 「위기의 농업정책」 (1)-(7), 『동아일보』, 1936.1.10-18. 반면 이여성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후발 자본주의세력들이 베르사유체제에 대한 현상타파의 필요를 느끼고 영토재분할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영토재분할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의 반복적 현상으로서 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여성, 「領土再分割論」, 『신동아』 제6권 3호, 1936.3. 양재하 또한 "금일의 정치내지 경제기구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에서는 소작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영원한 몽상"이며, 어떠한 사회정책으로도 지주(토지소유계급)와 소작인(토지사용계급)의 상호충돌을 전연 절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양재하, 「소작문제재검토」 (1), 『동아일보』, 1936.2.13.

92) 「이상과 희망」(사설), 『동아일보』, 1934.8.25. 1920년대부터 이어진 『동아일보』 주도층의 현실주의적, 사실중심의 인식은 급진적 변혁운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일제 지배의 현실을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자본주의적 실력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도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경택, 앞의 글, 146-147면.

논리를 수용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던 것이다.[93]

다만 이 시기의 필진·편집진 중 서항석, 현진건의 경우에는 당시 활동과 인적관계망을 고려할 때 앞의 세 그룹에 섣불리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서항석의 경우 『동아일보』 계열과 수양동우회계열, 두 그룹에 공히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양동우회계열과 함께 『조선일보』로 이동하지 않았으며, 속간 이후까지 1930년대를 관통하여 사설 필진·편집진으로서 활동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일보』계열에 보다 가까웠던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건은 출신대학(호강대학)으로 미루어 보건대, 동문인 주요한, 주요섭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복합적 요소들을 감안한 별도의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94]

한편 1937년 속간 이후의 사설 필진·편집진 또한 다른 성향의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그 진용을 살펴보면 정간을 전후로 구성원상의 연속성과 단절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설 필진만 두고 보았을 때는 연속성이 보다 두드러진다. 1930년대 중반부터 사설 집필에 가담했던 고영환, 고재욱, 서항석, 김장환은 속간 이후에도 여전히 필진에 포함되었고, 새로 사설 필진에 가담했던 양재하, 장현칠, 전홍진 등도 이미 정간 이전부터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기명논설을 게재하던 인물들이었다.

편집진의 경우에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주요 편집진의 이탈로 진용의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요시찰대상이었던 김준연, 설의식, 이여성, 박찬희와 직접 사건에 관계되었던 사회부의 부장 현진건이 강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다수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주필과 편집국장의 선임은 총독부의 승인도 필요했다.[95] 이 까닭에 속간 당시 주필과 조사부장직은 공석으로 하는 한편 편

93) 「불안과 재건」(사설), 『동아일보』, 1936.8.10.

94) 현진건은 주요한, 주요섭 형제와 학맥을 공유하였으나, 『동아일보』를 이탈하게 되는 그들과 달리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강제퇴사 당할 때까지 사회부장직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했다가 옥사한 친형 현정건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바, 그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국장직은 사장 백관수가 겸임하였다. 그리고 사회부장과 지방부장도 임병철, 임봉순과 같은 내부인사로 충원했다.

임병철은 1929년 기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한 이래 평양지국 특파원, 학예부 및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다만 그는 일장기 말소 사건에도 직접 연루되어 피체되었는데,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40일 이상의 복역 후에 『동아일보』를 떠나게 되었던 것과 달리 10일 만에 풀려났고 속간 이후에는 사회부장을 맡게 된다. 그리고 임봉순은 1927년 무렵 기자로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래 10여 년간의 기자생활을 거쳐 지방부장직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도 사상적 측면에서는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들과는 일정한 입장 차이를 지니고 있었으니, 임병철은 1930년대 초반에 이미 자본주의 제3기론적 인식 아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며,[96] 임봉순 또한 서울청년회 출신으로 사회개혁적 측면에서는 『동아일보』의 자본・경영진에 비해 급진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1937년 속간 이후 필진・편집진의 인적구성은 강제퇴사로 인한 단절과 함께 내부적 연속성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구성원의 성격 측면에서도 자본・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들과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진적 노선을 모색하던 인물들의 공존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전시 파시즘체제에 돌입한 일제는 검열・통제를 강화했고 필진 자신들도 점차 체제에 순응하여 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도층 일부의 현상타파론적 입장이 반영된 자본주의적 경제통제론과 일부 필진・편집진이 지향한 계획경제의 전단계로서의 통제경제론도 "반공산임과 동시에 반자본적"[97]인 혁

95) 총독부가 정간해제를 위한 충족조건으로 『동아일보』에 제시한 6개의 요구사항 중에는 사장, 부사장, 주필, 편집국장 임용에 대해 미리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東亞日報發行停止處分ノ解除ニ至ル經過」, 『思想ニ關スル情報綴』, 1937.

96) 임병철은 연전상과 재학시절 6.10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9년 기자 공채시험에 합격한 이래 평양지국 특파원, 학예부 기자로 활동하였다. 임병철은 백남운, 이순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0년대 전반 소농, 소작인 중심의 농촌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일찍부터 자본주의 제3기론에 입각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林炳哲, 「朝鮮農村社會問題, 農村問題特輯」, 『동광』 제20호, 1931.4; 「朝鮮農村問題解剖, 主로 農業政策에 對하야」, 『동광』 제29호, 1931.12; 「世界的 經濟恐慌」, 『신생』 제3권 10호, 1930.10.

97) 「時局 有志圓卓會議」, 『삼천리』 제11권 1호, 1939.1.

신주의를 표방하던 일본 제국주의 전시경제통제론으로 수렴해갔다.

속간 이후 시기의 중층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훗날 『동아일보』가 폐간되었을 때 양재하, 장현칠 등이 중심이 되어 따로 잡지 『춘추』를 간행하게 되었던 사실도 필진·편집진 내부에 서로 다른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편린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방 후 『동아일보』의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민당이 결성되지만 1930년대에 활동했던 주요 필진·편집진의 일부가 한민당이 아닌 건준(양재하, 이여성, 최익한 등)에 참여하거나 『동아일보』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한민당과 거리를 두며 중도적 노선(설의식 등)[98]을 취하게 되는 정치적 입장 차이도 1920·30년대 그들의 사상적 입장과 전연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앞선 시기의 사유와 인식이 강력한 사상통제를 수반한 일제 파시즘체제하에서의 왜곡, 굴절, 변용을 거쳐 해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아래 다시 전개된 것으로서, 물론 그 사상적 변화과정은 각각의 편차를 지니는 것이었고 그 복합적 과정의 결과를 다시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과 노선의 선택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4. 맺음말

1930년대 『동아일보』는 그 주도층의 정치적·경제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지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자확보와 광고유치가 필수적이었던 상업화된 회사조직이자 일제의 사상통제 아래 지식인들이 논전을 벌이고 피식민지의 여론을 대변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성질의 신문사였다. 그러한 『동아일보』의 내부는 김성수·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자본·경영진이 강고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편 필진·편집진은 제한적이나마 중층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김성수·송진우 중심의 자본·경영진은 전부 1920년대의 연장선에서 중앙학교 혹은 일본유학(주로 와세다)이나 호남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33년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이탈했고 1936년 일장기 말소

98) 해방 이후 설의식의 정치적·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강지웅, 「설의식의 정치노선과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 : 중간파 지식에 관한 일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사건으로 인해 다수 경영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자본·경영진 구성의 실질적인 성격 변화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편집진과 사설필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자본·경영진과 같은 인적관계망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1920년대의 주된 활동단체나 사상적 입장을 달리했던 인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동아일보』에서 주로 활동하던 필진·경영진과 더불어 수양동우회계열의 필진·편집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사회주의운동 경력을 지니거나 민족주의 좌파의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동아일보』의 정치·경제적 주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1933년을 전후로 수양동우회계열이 『조선일보』로 대거 이탈하자, 주도층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들과 이전에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한 바 있었던 인물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 가운데 후자는 주요 편집진과 필진으로서 사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점차 확보해 갔고, 사설에도 자본·경영진의 이해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사유와 인식이 일정부분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나마 중층적인 필진·편집진의 구성 자체는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다. 그러나 전시통제체제 아래에서 사설의 논조는 일제에 순응하는 논리로 일원화되어 갔고, 그나마도 1940년에 이르러 언론통제계획의 일환으로 강제폐간에 이르면서 더 이상 표출될 수 없게 되었다.

1930년대 『동아일보』의 사설에 나타나는 논리의 착종과 혼재는 이상과 같은 인적 구성과 변동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만 사설이 무기명인 까닭에 정확한 필자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논리의 전부가 사측 입장으로 환원되면서 필진과 편집진에 대한 고려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사설은 자기검열을 거친 필자의 입장과 사의 입장 사이의 긴장관계를 거친 결과물이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총독부의 검열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검열체제의 측면까지 심도 깊게 고려하지는 못했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 1930년대 『동아일보』 구성원의 변동은 당시 사설에 나타나는 주장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데, 구성원의 변동을 감안한 사설분석 작업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부록〉 1930년대 『동아일보』 주요 편집진 및 사설 필진 경력 사항[99]

성명	직위/직책(활동시기)*	학력	주요경력 (해방 전/해방 후 경력)	출신지
고영환	정치부 기자・논설부원 (1930-1940)	휘문의숙, 와세다대	휘문중학 교사, 보성전문 강사, 『기독신보』 촉탁/『동아일보』 논설위원, 『대한독립신문』 주필, 『동광신문』 주필, 납북	경남 또는 진주
고재욱	학예부・정치부기자 (1931.1-1933.8) 경제부장(1933.8-1940) 편집국차장(1937.12-1939.11) 편집국장(1939.11-1940)	창평학교, 중앙고보, 동경아자부중학, 야마가타고등학교, 교토제대	『동아일보』 편집국차장/『동아일보』 편집국장・주필・사장・회장, 인촌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전남 담양
국기열	정치부장(1928.3-1933.6) 사원(1933.6-1934.8)	세이소쿠영어학교, 와세다대(중퇴)	서울청년회, 북풍회, 담양노농회, 조선사정조사연구회, 『매일신보』 전남지사장/건준 전남지부 총무부장, 전남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민전(전남)	전남 담양
김우평	조사부장(1928.3-1932.4) 경제부장(1932.4-1933.8)	중앙학교, 세이소쿠영어학교, 센다이 제2고등, 오하이오주립대, 콜롬비아대(석사)	조선경제학회 창립 멤버, 만주국 재정부 촉탁, 만주국협화회 조선인민회 분회 상임간사/미군정 중앙경제위원회 사무처장, 외자판매청장(초대), 부흥부장관(7대), 국회의원(5대) 등	전남 여수
김장환	정치부장(1933.10-1940)	휘문의숙, 니혼대	신간회 전체대회 전형위원/조선신민당	제주
김준연	편집고문(1934.10-1935.2) 주필(1935.2-1936.8)	영암보통학교, 경기고보, 오카야마 제6고등, 도쿄제대, 베를린대	『조선일보』 기자, 조선공산당 책임비서(3차)/『동아일보』 취체역, 한민당,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전남 영암
박찬희	지방부장(1925.12-1936.8)	와세다대	『시대일보』 기자, 조선농민사 이사, 조선사정연구회/조선민족당, 한민당 정보부장, 5대 국회 참의원, 신민당 지도위원 등	충북 진천
서춘	조사부장(1932.4-1933.6) 경제부장(1927.5-1932.4, 1933.6-1933.8)	오산학교, 도쿄고등사범학교(중퇴), 도요대, 교토제대	『조선일보』 주필, 물산장려회 이사, 조선문화사 사장, 『매일신보』 주필 등 (1944년 사망)	평북 정주
서항석	정치부・학예부기자 (1929.4-1933.10) 학예부장(1933.10-1938.9)	중성학교, 보성고보(편입)・중앙고보 (편입), 센다이 제2고등학교, 도쿄제대	조선연예협회 이사, 현대극장 부설 국민연극연구소 강사/국립극장장, 문화단체총연합회 최고위원 등	함남 홍원
설의식	편집국차장(1929.11-1935.2) 편집국장(1935.2-1936.8)	중앙학교, 니혼대	물산장려회 이사(1933)/『동아일보』 주간, 『새한민보』 사장	함남 단천
양재하	경제부 ・사회부 기자 (1933.10-1940)	경성법전	『조선일보』 동경지국 기자, 조선춘추사 이사/건준, 『한성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납북	경북 문경
이광수	편집국장(1929.12-1933.8)	다이조중학, 메이지학원 중학부, 와세다대	『조선일보』 편집국장・부사장	평북 정주
이여성	정리부 사원(1932.10-1933.6)	보성학교(전학), 중앙학교,	혜성단, 북성회, 일월회, 『조선일보』	경북

	조사부장(1933.6-1936.8)	릿쿄대	사회부장・조사부장, 건국동맹/건준, 조선인민당, 민전, 근로인민당	칠곡 (대구)
임병철	기자(1929.3-1936) 사회부장(1937.12-1940)	연희전문(상과)	6.10만세운동 참여/『동아일보』 편집국장, 취체역	함남 함흥
임봉순	사회부・지방부 기자 (1927.10-1938.4) 지방부장(1938.4-1940)	봉명학교, 중앙학교, 와세다대	청년당사, 북성회, 서울청년회/한민당 발기인, 대한해운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선운수주식회사 등	경기 양주
장현철	정리부・경제부 기자 (1934.4-1940)	호세이대	조선춘추사 이사/조선춘추사 전무 겸 주간, 조선통신 편집국장	경기 (전북 김제)
전홍진	사회부・경제부 기자 (1933.5-1940)	보성전문(상과)	『매일신보』 편집부장/합동통신 편집국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국일보』 편집국장, 『서울신문』 주필, 자유당 선전부 차장	서울
주요한	논설반 촉탁 (1929.12-1932.11)	숭덕학원, 메이지학원 중등부, 도쿄제1고등학교, 상해 호강대	『독립신문』 출판국장, 조선물산장려회 이사, 『동광』 편집인 겸 발행인, 『동아일보』 학예부장・평양지국장・편집국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주)화신 취체역/『동아일보』 편집국 촉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국민신문』 편집국장, 조선민주당 선전부장・사무국장, 부흥부・상공부 장관 등	평남 평양
주요섭	잡지부 기자・잡지부장 (1931.10-1934.8)	숭덕학교, 아오야마학원, 소주 안세이중학, 상해 호강대	보인대학 교수/상호출판사(相互出版社) 주간, 『코리아타임스』 주필, 경희대 교수	평남 대동
최익한	논설 기자 (1939.2-1940)	중동학교, 와세다대	일월회, 조선공산당 일본부 조직부장/조선공산당 장안파, 건준 조사부장, 민전 중앙상임의원・기획부장, 근로인민당	강원 울진
함상훈	논설반 기자 (1929.5-1933.8)	와세다대	신간회 경성지회/한민당 선전부장, 민주국민당 선전부장.	황해 송화
현진건	사회부장(1928.3-1936) 학예부장(1939.7)	세이조중학, 상해 호강대	『조선일보』・『시대일보』 기자, 『백조』 동인(1943년 사망)	대구

* 본 표의 사내 직책과 재임기간은 1930년대 위주로 작성됨.

9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강만길・성대경 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 1996;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2009; 방기중, 「1920・30년대 물산장려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6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이상의, 앞의 글; 조배원, 앞의 글; 정진아, 「학해를 통해 본 일제 말기 지성계의 단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차재영, 「한국정부의 수립과 현대언론의 정착」,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년 8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해방후 사회운동』, 휴먼컬처아리랑, 2015; 『東亞日報社史』 권1, 동아일보사, 1975; 『東亞日報社史』 권2, 1978;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한성일보』 등.

▮ 참고문헌

『동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비판』, 『思想ニ關スル情報綴』(1937), 『삼천리』, 『신동방』, 『신동아』, 『신문총람』, 『신인문학』,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조선중앙일보』, 『조선총독부관보』, 『중앙일보』, 『철필』, 『한성일보』, 『혜성』.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강지웅, 「설의식의 정치노선과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 : 중간파 지식에 관한 일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김경택, 「1910·20年代 東亞日報 主導層의 政治經濟思想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명엽, 『서도에서 길을 찾다』, 민속원, 2013.
김병구,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3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6, 12-38면.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제28집, 서울대 국사학과, 1992, 209-262면.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김상현, 「낭산 김준연의 민족운동과 해방 후 정치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0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265-300면.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5.
박용규, 「미군정기 중간파 언론—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 제2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992, 164-196면.
_____, 「일제하 민간지 기자집단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직업의식과 직업적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이준, 「현준호의 자본형성 과정과 친일행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75-199면.
박찬승, 「한말 호남학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5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128-180면.
_____,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박태균,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제58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87-120면.
방기중, 「1930년대 物産奬勵運動과 民族·資本主義 經濟思想」, 『동방학지』 제115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2, 47-108면.
신용균, 「李如星의 政治思想과 藝術史論」,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오수열, 「근촌 백관수의 생애와 정치이념」,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3호, 한국동북아학회, 2011, 107-127면.
오진석, 「1930년대 초 전력사업 공영화운동과 경성전기」, 『사학연구』 제94호, 한국사학회, 2009, 177-216면.

윤덕영,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체제 비판에서 체제 굴종으로—」, 『사학연구』 제108호, 한국사학회, 2012, 191-261면.
이상의, 「일제하 미국유학생의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노동관」, 『역사교육』 제119집, 역사교육연구회, 2011, 127-166면.
이수일, 「1920-30년대 산업합리화 운동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인식」, 『역사와실학』 제38집, 역사실학회, 2009, 153-206면.
이준식, 「일제 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 인식 : 이광수의 경우」, 『역사와현실』 제37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175-197면.
이지원, 「1930년대 前半 民族主義 文化運動論의 性格」, 『국사관논총』 제5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158-181면.
_____, 「파시즘기 민족주의자의 민족문화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399-436면.
이태훈,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국제정세인식과 파시즘 논의」, 『역사문제연구』 제19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243-269면.
_____, 「1910-20년대 초 신지식층의 민주주의 인식과 현실활용—일본 유학생과 동아일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56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67-100면.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 『역사와 현실』 제11호, 한국역사연구회, 1994, 22-49면.
장규식, 「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근대지식 수용과 국민국가 구상」, 『한국근대사연구』 제3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121-156면.
장 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통권 제7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164-196면.
_____,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통권 제7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242-272면.
_____,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와 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 『역사문제연구』 제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387-424면.
조규태, 「1930년대 한글신문의 조선문화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215-256면.
조형열, 「協同組合運動社의 조직 과정과 주도층의 현실 인식(1926-1928)」, 『한국사학보』 제34호, 고려사학회, 2009, 139-174면.
_____,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협동조합론」, 『한국사학보』 제61호, 고려사학회, 2015, 584-616면.
채관식, 「1930년대 '조선학'의 심화와 전통의 재발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채 백,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7-39면.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36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204-235면.
최선웅, 「정인보와 동아일보—조선학을 둘러싼 접점」, 『한국인물사연구』 제23호,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183-216면.

최재성, 「일제 식민지기 이여성(李如星)의 민족운동」, 『사림』 제39호, 수선사학회, 2011, 257-288면.
_____, 「1930년대초 김우평의 금융조합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119-160면.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 민족파시즘론 재고」, 『대동문화연구』 제10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405-431면.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149-175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4-1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5-285면.
홍종욱,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정세 인식—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73-116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nl.go.kr/newspape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Abstract】

Dong-A Ilbo in 1930s: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Han, Jong-Min*

In the public space of the colonial Chosun (Korea) in the 1930s,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provided a legal space where intellectuals could express their thoughts. Through *Dong-A Ilbo's* role as a social criticism, leaders of the company tried to exert a certain amount of political influence in the colonial Chosun. Such a role, however, was only possible under the censorship of the imperialist government. Also as a commercialized newspaper, concern for a profit and issue such as attracting advertiser and subscriber had a certain influence on the tone of the pres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1930s, the organization of its members also influenced the tone of press. Members of the *Dong-A Ilbo's* leading group was either consist of landowner class of the Jeolla province (Jeolla-do) or shared an alumni's connection of the Choongang school in seoul or Waseda in Tokyo. As Kim Sung-soo the major shareholder and Song Jin-woo the president were two core figure of the company, interest of their establishments so called "Kim's Konzern", such as Kyungsung Textile CO. ltd, Choongang School, and Boseong College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tone of the editorials.

Some of editorial writers and editors, however, had different ideological views from the leading group including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In the early 1930s (1930-1933), the editorial writers and editors consisted of three major groups: senior fixtures, so to speak, who had been working in *Dong-A Ilbo* for a while, and the members of Suyangdonguhoe, finally a group of left-wing nationalists and socialists. The senior and suyangdonguhoe group were leading the tone of the editorials. In 1933, as most of the Suyangdonguhoe group moved to *The Chosun Ilbo,* the leftist group gained more leverage and their thoughts were reflected in the editorial more than before. The coexistence of *Dong-A Ilbo's* leading group (including the senior group) and the relatively radical writers of leftist group maintained for some time (1937-1940), even afte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hange of personnels caused by the erasure of National flag of Japan (called iljang-gi) in 1936.

Under the Japanese fascist system, however, their ideologic differences were forced to merged into the wartime cooperation discourse. Their opinion, which had undergone a series of transformation have faced a turning-point again with liberation of the country.

Keywords: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Organization,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Editors, Editorial writers.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